

중등부 여러분~~

은혜의 여름수련회로 초청합니다^.^

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, 우리 중에 계실 때는 너무 행복 하였습니다.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전파 되었습니다. 병든자 눈먼자 모두 고쳐주시고,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 흘러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.

(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..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. 마1:23)

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로 모셔 두지는 않습니까?

정말 우리는 시험 때에 그분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습니까?

주일도 수련회도 빼먹고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분주하지는 않습니까?

고등부, 대학부, 성년이 되어서는 정말 어떻게 하지요?

(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롬8:26)

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, 간구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. 정말로 오병이어의 역사가, 소경이 보며,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. 정말로 이 세상도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~~.

(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. 시91:2)

정말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름수련회 되었으면 해요^.^. 모든 것 재쳐두고...

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되기 바랍니다. 수련회 함께해요!! (7/30~8/1)

찬양과 예배, 지금부터 저 천국 빛나는 곳까지 주님과 함께 해요.

(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. 계7:10)